정신문화연구 2003 가을호 제26권 제3호(통권 92호) pp. 301~339

해외 한국학 동향

# 미국의 한국학자 : 게리 레드야드(Gary Ledyard)

편집실에서

『정신문화연구』 92호에 실리는 해외한국학동향의 주인공은 게리 레드야드(Gary Ledyard) 교수(컬럼비아 대학 '세종대왕' 한국학 석좌교수)이다. 게리 레드야드 교수는 6.25 전쟁 직후 한국에 파견근무를 한 경험이 계기가 되어 한국학을 연구하게 되었다. 한글 연구를 시작으로 입문하였으나 한국학의 영역을 확대하여 한국사와 한국문화에 대해 폭넓은 연구 활동을 전개한 한국학자이다. 대담에는 컬럼비아 대학의 한국학연구소장인 찰스 암스트롱(Charles Armstrong) 교수가 담당했다. 본 내용은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9」 (Vol. 6 No. 1 2003. 6월)에 실린 인터뷰의 번역문이다.

대담자: 찰스 암스트롱 교수(컬럼비아 대학 교수, 컬럼비아 대학 한국학연구소장)

## 어떻게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가?

질문: 교수님과의 인터뷰가 활자화 될 때쯤이면 한국과 인연을 맺은 지 정확히 반세기가 됩니다. 이야기 거리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한국학에 투신하기로 작정하기 이전 유년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게리: 1932년 미국에 대공황이 닥쳤을 때 뉴욕의 시라큐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힘겨운 시기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직업을 얻기 위해 여기저기로 옮겨 다녀야 했지요. 제가 태어날 당시 저희 가족은 막 시라큐스에 정착했을 때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미시간 토박이로 저는 디트로이트와 앤 아버(Ann Arbor)에서 유년기를 보냈지요. 그러다 1948 년 저희 가족은 캘리포니아로 이사했고 저는 2년 후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위치한 산 라파엘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대학과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서 2년 동안 공부했지만 그다지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전기공학자가 되려고 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는 경제·경영학을 전공하려고 했지만 그것 역시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했습니다. 저의 관심사는 언어와 고전 음악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오페라를 아주 좋아했지요. 물론 어려서 음악 교육을 받긴 했지만 그다지 타고난 재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어학으로 생계를 있기에는 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1953년 초 그저 평범한 수준의 학점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제 자신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걱정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해 2 월 군대에 들어가기로 결정했고 그것이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지요?

게리: 의도적인 노력보다는 운명에 의해 맺어졌다고나 할까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지 9일째 되는 날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도 한국에 대해 두어 번 들은 적은 있지만 그다지 깊은 인상은 갖지 못했죠. 한번은 지도에서 한국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 같습니다. 중국하고 일본 근처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제작되는 지도는 한국에 관한한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한

국(korea)이 아니라 조선(chosen)을 찾아야만 했죠. 한국전이 일어나자 거의 매일같이 신문에 한국의 지도가 실렸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1950년 4월, 열 여덟살이 되자 군대의 징집 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그게 저를 한국으로 이끈 커다란 이유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한다는데 대해 큰 두려움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운이 좋게도 당시 대학에 등록해 있는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징집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1953년까지 저의 대학성적은 그리 좋지 못했고 여러 번 전공을 바꾼 경력은 제가 그다지 대학사회와 인연이 닿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징병위원회는 바로 그런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징집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약점을 갖고 있었던 셈입니다. 만약 징집이 된다면 전공과를 선택하지 못하고 몇 달 내에 전장에 배속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자진입대를 해서 관심 있는 분야의 두세 가지 전공을 신청할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유용한 훈련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럴듯한 부서로 배속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의무 징집 2년 대신 3년간 근무해야 했지요.

**질문:** 군대에서 지원하신 전공은?

**게리:** 당시 신병 지원서에 어떤 과를 지원했는지는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가 외국어 훈련이었는데 통역이나 번역자가 되고자 했던 거 같아요. 물론 신병징집을 담당하는 사람이 특별나게 뭘 보장해주지는 못하지만, 당시 채용자는 제가 기본적인 훈련을 마치면 제가 지원한 과에 적성이 맞는지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이것 역시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결정할 운명적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저처럼 특별한 과에 배속받기 위해서 자원으로 입대한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두 달 동안 기본훈련을 받는 동안 저는 심하게 앓게 되고 2주 동안 병원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다시 부대로 복귀했을 때는 너무 많은 훈련을 빼먹은 셈이 되었지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기본훈련을 마치고나서 어느 부대에 배속될지 신청을 했는데 함께 훈련을 시작해서 나보다 한 달 앞서 끝냈던 사람들도 취사병이나 헌병으로밖

에는 배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과는 이미 인원이 다 차 버린 것이지요. 나머지 사람들에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별반 큰 차이점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군대란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신청서를 막 냈을 때 다른 과가 다시 신청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어 적성검사를 신청했고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러시아어를 배우는 곳으로 배정되었고 캘리포니아 몬테레이(Monterey)에 있는 군사 외국어 학교(Army Language School)에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에 러시아어 수업이 7주간의 계획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지요.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임시로 배속 받은 부서에서 자잘한 업무를 보았습니다. 아프지 않고 기초훈련과정을 제때에 맞추었더라면 3년간 취사병이나 헌병으로 복무했을 것입니다. 하늘만이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한국에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게리:** 군대라는 게 늘 바뀌는 데라서 말이지요. 처음 러시아어를 배우게 되었을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러시아 음악과 소설들을 좋아했거든요. 학생 때는 러시아 성악 선생님한테서 레슨을 받았는데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를 배우려고 했어요. 일주일후 러시아어와 다른 슬라브 언어를 배우게 되어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본부로 호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한국어반으로 전출되었고 며칠 내로 몬테레이에서 한국어 반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운명이 다시 한번 그 힘을 발휘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몬테레이에서 일년 동안 러시아어를 습득해 유럽으로 발령이 나기를 기대했었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아주 실망스러웠지요. 러시아어를 배울 기회를 잃은 상실감이 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전시상황이었기 때문에 걱정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은 났고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고 피할 방도는 없었습니다.

**질문:** 재미있군요. 그런데 군사외국어학교(Army language school)의 한국어과 프로그램은 어떠했나요?

게리: 1년 중 50주 동안 교육을 받고 마지막 2주는 쉽니다. 하루 6시간 수업이 주 5일 계속되었고 말하기, 읽기, 쓰기를 집중적으로 교육받았습니다. 강사는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인 남녀 유학생들이었지요. 외국어를 배우는데 이상적인 규모라 할 수 있는 8,9명이 한 반을 이루었고 일대일 지도 방식이 많이 가미되었지요. 저는 전에도 라틴, 스페인어, 독일어를 독학했고 오페라 대본을 가지고 이태리어를 공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언어였지만 곧 흥미를 느끼고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한국어 코스 초반에 배우기 시작한 한자에 아주 매력을 느꼈죠. 물론 한글을 주로 배웠지만 교재는 한글, 한자가 혼용된 것들이어서 한자도 배워야 했지요. 그때 저희를 가르쳤던 강사들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어서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나중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당시 선생님들의 집을 방문할 수 있었지요. 전 정말 얼른 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질문: 그럼 한국에 도착하신 건 언제쯤이신가요?

게리: 제가 속한 한국어반은 1954년 5월에 졸업하게 되어 있었는데 11월이 지나도록 한국에 파견되지 못했어요. 군대라는 게 늘 바뀌는 법이라서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국어반 병사 중 성적이 좋지 않은 절반 정도를 한국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25명 중에서 4등으로 훈련을 마쳤기 때문에 워싱턴으로 발령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군 본부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약 한달 동안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아주 강력하게 내비쳤습니다. 한국전에서 복무했던 경력이 있는 군인들은 저를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자원해서 한국에 가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일본에서 저와 같은 훈련을 마친 사람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지원했고 시애틀에서 일본으로 가는 군함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가 일본 도쿄에 도착한 것은 1954년 7월말쯤이었고 그곳에서 약 넉 달 머물렀습니다. 제가 진짜 가고자 했던 곳이 일본은 아니었지만 일본에 오게 된 것 역시 하나의 기회로 여기고 곧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마침 한국에 자리가 난 것을 알고 전출을 지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한 것은 1954년 11월 20일이었습니

다. 적극적으로 한국에 가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면 결코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가끔 한국 친구들이 저한테 왜 한국을 공부하고자 '선택' 했느냐고 묻습니다만 저는 한번도 이걸 선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운명이 나에게 한국을 선사했노라고 말이죠. 물론 제 인생이기 때문에 결정은 전적으로 제 몫이었지만요. 감히 나는 축복받은 운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한 연구를 훌륭하게 해왔고 또 그 안에서 아주 행복했으니까요.

## 한국에서의 생활

**질문:** 한국에서는 어디에 주둔하셨지요?

**게리:** 운 좋게도 서울에서 군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부대는 한때 중학교였던 건물을 막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 주변 환경은 군대생활 그 자체였지만, 서울을 지척에 두고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부대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볼 때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서울은 부대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고 저는 곧 서울이라는 도시에 아주 친숙해지게 되었답니다.

**질문:** 당시 서울 풍경은 어떠했습니까?

**게리:**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고 16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서울은 그사이 상당히 정돈된 듯해 보였지만 전쟁으로 파괴된 흔적들이 여전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90년대 김영삼 정부에 의해 철거된 중앙청 건물은 크게 손상을 입고 일부분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종합청사가 서 있는 자리에는 천막이 즐비해 있었는데 그중에는 임시 학교로 쓰이는 것이 많았습니다. 명동은 완전히 폐허상태였고 도시 곳곳에 전쟁의 상흔을 그대로 보여주는 파괴된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개중에는 이미 철거되고 다른 구조물로 대체되는 건물도 많았는데 대개 임시방편으로 폐자재를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도시 외관과 건물들이 들어선 것은 아마 1970년대 들어서일 겁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당시 서울은 그런대로 편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건널 때는

그냥 건너면 되었으니까요. 터널이니 육교니 하는 것은 없었으니 말입니다. 택시를 타고 싶으면 그냥 길거리로 내려서서 손을 흔들면 되었지요. 여러 가지 낡은 부품으로 수리하고 조립한 택시는 좌석마다 승객을 꽉 채워서 운행하는 것이 보통이었죠. 택시를 타려면 먼저 요금을 흥정하고 얼른 타야 합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닿기도 전에 내려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같이 활기에 넘쳤고 모두가 뭔가로 바쁘게 움직였던 시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넘치는 활기 그 자체였지요. 그리고 당시는 길거리의 민주주의라고 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여러 가지 불편함과 역경을 견뎌내야 했으니까요. 다소 감상적으로 들리겠지만 오늘날 바쁘고 경쟁적으로 움직이며 풍요를 추구하는 서울보다 당시가 인간의 선한 본성이 그대로 더 드러났던 때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그 어려운 때를 힘겹게 보내고 경험한 한국인들은 이런 저의 말을 아주 순진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서울에 주둔한 미군 병사로서 저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하고 만나 본 한국인들의 어려움은 그저 피상적인 것이었는지도 모르지요. 아무튼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고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고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한국이 더 좋아지고 저도 행복해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질문: 한국에 계실 때 아주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신 거 같은데,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만나셨나요?

게리: 제가 서울에 오자 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던 선생이 자신의 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후로도 계속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이 이훈규씨로 그분의 아들이 몬테레이에서 저를 가르쳤죠. 위스콘신 대학의 박사과정에 재학했던 이 박사님은 1930년대 한국의 농촌경제에 대해서 일본의 시각과는 달리 아주 포괄적이고 비판적인 논문을 썼는데 지금도 식민시대의 중요한 자료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1] 이 박사는 그 후 군정에 참가했고 제 기억이 맞

1) Hoon K. Lee, Land Utilization and Rural Economy in Kore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36. reprint, Greenwood Press Publishers, New York, 1969

는다면 초기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이 박사님은 내가 한국에서 처음 방문했던 집이었는데 그해 추석에도 초대받아 이 박사와 자제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박사는 원남동 사거리에 있는 조그맣고 오래된 이층집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 창경원에 있던 동물원의 담장과 담을 같이 하고 있었지요. 아주 바쁘신 분으로 한동안은 만나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이 박사님은 제가 만난 최초의 한국학자였던 셈입니다. 한국어 선생들과 연관된 가족 외에 저는 주로 다방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클래식 음악 애호가였던 저는 인사동(나중에 종로 1가로 이사함)에서 '르네상스'라는 음악 다방을 찾아냈죠. 명동에는 '돌체'라는 곳이 있었구요. 음악 면에서는 르네상스 다방이 훨씬 나은데다가 손님들 역시 아주 진지한 태도를 음악을 감상했습니다. 음악 감상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담소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명동의 '돌체'가 좋았습니다. 그곳에는 음악은 물론 예술가와 여러 종류의 전문 직업인들이 많이 모여들었었죠. '돌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청동'이라는 다방이 있었는데 시인들과 작가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곳에서 당시 시인으로 유명한 작가 오상순 선생을 만나 친구가 되었지요. 그분은 늘 하얀 셔츠에 호박색 파이프로 줄 담배를 피워댔는데 주변에는 늘 멋진 여성들이 함께 자리하곤 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분이었습니다. '청동'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피가로'라는 다방이 있었습니다. 시공간이라는 극장 근처였을 겁니다. 그곳에서는 음악가 윤이상을 만났어요. 잘 알려진 작곡가지만 당시는 막 활동을 시작한 음악가였습니다. 윤이상은 아주 조용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종종 그의 집을 찾아가 가족들을 만나곤 했지요. 얼마 후 윤이상은 유럽으로 유학을 떠났고 20세기 유럽 음악에서 가장 유명한 모던니스트 중 한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윤이상은 중앙정보국(KCIA)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중앙정보국은 윤이상의 정치적인 성향이 북쪽에 가깝다는 이유로 그를 납치해 한국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납치에 대해 국제적인 여론이 들끓고 외교적인 파장이 커지자 다시 독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질문:** 그럼 한국학을 하시고자 결심하게 된 것이 그 즈음인가요?

게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는 그저 한국과 친숙함을 더한 상태에서 군대를 떠나면 뭔가 해보리라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당시에 '한국학'이라는 용어를 들어 본적도 없지만 학문적으로 접근한다는 개념도 아직 갖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되돌아보노라면 저는 이미 '한국을 공부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저의 한국어 실력과 한자 실력은 빠르게 늘고 있었고 한시까지 배우는 단계에까지 와 있었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역사를 배울 수 있었고 또 필요하면 미 8군 도서관에서 자료들을 찾아보며 공부했습니다. 당시 저는 조선일보의 간부와 공무원들 몇몇에게 개인적으로 영어회화를 가르치면서 A.L.I라고 알려진 '미국영어연구소(American Language Institute)'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가끔 코리아 타임즈와 한국일보에 기사를 쓰기도 했죠. 서울에 주둔할 당시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의 생활속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온실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자라왔다는 것을 깨달았죠.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지 못했습니다. 부대에서 저는 대학과정도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하고 미래도 불확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한국을 떠날 때쯤에는 더 사려 깊고 자신감 넘치는 청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저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였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내면적인 변화의 바탕 속에서 저는 마침내 한국학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질문: 한국을 떠나신 건 언제인가요?

게리: 보통 저 같은 병사는 의무적으로 16개월을 복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머문지 9개월 후 전출명령이 내렸습니다. 저로서는 아주 유감스러웠지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제가 한국인들과 교제하는 사실을 제 상사가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가 이를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체'다방에서 만난 친구들 몇 명과 대포집에 가서 가볍게 한잔 한 다음 근처에 사는 친구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11시가 다 되어서 귀대했는데 한국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주는 냄새 때문에 상사가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시내에서 식사를

했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이건 규정위반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에 있는 식당 중에 미군 병사가 드나들 수 있는 곳은 소공동의 중국집과 반도호텔, 조선호텔 식당뿐이었습니다. 더 나빴던 것은 그때 제 상사가 저를 앞뒤로 훑어보다가 제 셔츠위에 백묵가루가 묻어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A.L.I 에서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것 역시 규정위반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부대에서 외출금지령을 받았고 그 다음날 아침 사령부에 불려갔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인들과의 친교금지(anti-fraternization) 정책'에 대한 일장 연설을 한 다음 일본에 있는 부대로 전출한다는 명령서를 주었습니다. 2,3 일 후 작별인사도 못하고 저는 도쿄로 전출되었습니다.

질문: 친교금지(anti-fraternization) 란 뭔가요?

게리: 이름이 그렇더군요. 군대는 가능한 미국병사를 일반인들과 거리를 두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런 규정이 생긴 것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미군들의 불합리한 행동으로 미군과 한국인들 사이에 생길 수 있었을 법한 문제들을 상당부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중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대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부대도 근처에 '캠프 타운'이 있었고 부대원들은 이곳을 자주 애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여자를 사귀거나 하는 것들이 허용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해도 곧 잠잠해지곤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병사들은 '캠프타운' 내에 있다는 조건으로 부대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음악 밴드도 있었고 춤도 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가르치는 일은 안 된다니요? 시내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금지라니요? 그것이 바로 '친교(fraternization)'라고 지목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대 문화 내에서 한국과 한국인들은 그리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한국 식당은 위생시설이 좋지 않아 먹으면 무슨 병에 걸리게 된다는 말들이 돌아다녔지요. 그러니 제 행동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상하고 의심스러워 보였겠지요. 불행하게도 현재 주한미군 내 문화 속에도 50 여년 전의 것과 똑같은 그런 편견이 남아있습니다. 아주 유쾌하지 못한 일이죠. 한국을 떠나는 것은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물

론 그 후로도 여러 번 다시 방문할 수 있었고 40여년 동안 한국을 드나들면서 즐거웠지만 제가 스물 두 살 이곳에 있었을 때의 서울 거리에서 행복했던 것만큼은 아니었습니다.

## 정식으로 한국학 연구를 시작하다 생활

질문: 버클리에서 정식으로 한국학 연구를 시작한 것은 언제인가요?

게리: 1956년 봄 학기였습니다. 저는 1955년 9월 초에 도쿄에 도착해서 12월쯤 다시 미극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했습니다. 자유시간에는 일본어를 공부했고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방을 찾아다니며 즐기던 생활을 계속하려고 했었죠. 물론 일본에서도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재미난 경험도 많았습니다만 한국에서만큼 그런 개방성과 따스한 정 그리고 자연스러움 같은 것을 느낄 순 없었습니다. 도쿄에 있는 미군 도서관에서 한국관련 책들을 찾으며 시간을 보냈는데 책의 양도 적거니와 질적으로도 얼마나 빈약한지 알고 놀랐습니다. 영어로 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책에 비해서 말이죠. 그중 제가 본 책 중에 최고의 것은 코르넬리우스 오스굿이라는 인류학자가 쓴 『한국인과 한국문화(The Koreans and their Culture, Ronald Press, New York, 1951)』였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한 마을에 대한 그의 연구를 특히 좋아했는데 그곳 사람들과 그들의 삶에 대해 그가 갖고 있었던 이해와 애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사에 대한 저자의 설명이 아주 빈약하긴 하지만 1950년대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보다 더 나은 작품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한국 관련 독서를 통해 알게 된 것은 한국이 서양에서 그리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도쿄에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경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 편지를 썼고 1956년 봄 학기에 등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학교측이 저의 신통찮은 학부 성적을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있었던 것은 군인 출신의 베테랑 정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

니다. '군사외국어학교'에서 받은 훈련에 대해 1년 동안 따야 할 30 학점 정도 인정해 주었으니 말입니다.

질문: 그래서 곧바로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게리: 학부 과정을 마저 마쳐야만 했습니다. 말하자면 3 학년에 해당하는 주니어 클래스에 등록했지요. 문제는 한국어를 계속 공부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버클리에 지원하게 된 것은 제 고향과 가깝고 캘리포니아 주의 시민이 되면 교육비가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956년 초만해도 미국 어디에서도 한국학 프로그램이 개설된 곳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으면서 한국 문화를 공부하려면 적어도 한국어와 한문 둘 다 알아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충분할 정도로 한국어로 말하고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 계획은 한문을 시작해 계속 진도를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원할 당시에는 몰랐지만 당시 미국 내에서 그래도 중국어를 배우기에 최선의 장소가 있다면 그건 버클리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학위를 중문학으로 받게 됩니다. 제 지도교수는 제가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논문에서 한국과 관련된 주제와 쟁점들을 더 부각시키도록 용기를 주셨습니다. 버클리에서 공부하는 7년 동안 그곳 교육의 질과 유연성에 힘입어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데 가능한 최선의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국학에 전념하다

질문: 함께 연구하신 분들 중 중요한 연구자로 꼽을 수 있는 교수를 꼽으신다면?

게리: 가장 유명하신 분을 꼽으라면 먼저 피터 알렉시스 붓드버그(Peter Alexis Boodberg)를 들 수 있습니다. 제정 러시아 당시 망명하신 분으로 아주 독특한 학자이자 인간적인 분이었다고 기억됩니다. 언어학자이자 중국어를 학문분과로 발전시킨 선구자이신 Y.R.Chao 선생님, 붓드버그의 제자였던 에드워드 샤퍼(Edward Schafer), 문학이라는 영역에서 학자로서 비

평가로서 유명했던 Chen Shih-hsiang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중 붓드버그 선생이 가장 커다란 영감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분에게서 학자란 과연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클 로저(Michael Rogers) 선생을 들 수 있을텐데요. 당시 젊은 학자였던 그는 저한테 선생으로서, 그리고 제가 열심히 연구한다면 될 수 있을법한 그런 학자로서 저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한국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자료들을 가지고 중국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 일련의 논문들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멋진 연구였고 논문들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저기 논문집에 산재해 있어 아직도 한국에 알려지지 않고 또 평가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질문: 교수님의 박사학위 논문 [1446년 한국어 개혁에 관하여(The Korean Language Reform of 1446)]는 한글창제에 관한 것 입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게리: 학부과정을 다 마치기도 전에 저는 이미 한글창제에 관한 주제로 박사논문을 쓰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이슈 중 가장 굵직한 내용이잖습니까? 서울에 있는 동안 1446년에 나온 훈민정음해례본을 복사해 두었었죠. 일찍이 해례본은 처음 두장에 해당되는 서문을 빼고는 원문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서문조차도 다른 자료에 인용되었던 것을 통해 알려졌을 뿐, 전체 내용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940년대 목판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엄청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버클리에서 Y.R.Chao 교수와 함께 중국 음운학을 연구하면서 세종대왕 역시 당시 제가 보는 자료와 똑같은 걸 가지고 직접 연구하며 한글 자모를 만드는데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Chao 교수의 지도 아래 저는 몇 가지 주석을 달아서 일차 번역본을 완성했고 1958년 학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저는 이 연구를 확대해 석사논문을 위한 연구로 발전시키고 싶었지만 석사 논문으로는 너무 주제가 방대할뿐더러 버클리에서 구할 수 없는 자료들이 너무나도 많았었기 때

문에 그 계획은 미루게 되었습니다. 대신, 고려와 몽고와의 관계를 서술한 중국과 한국측의 외교 문서를 연구해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연구는 특히 저한테 아주 유익했었는데 이 논문을 통해 진정 역사학이라는 영역에 들어설 수 있었고 역사를 연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텍스트 분석의 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것 입니다. 고려사에 나타난 몽고의 두 가지 자료를 연구한 논문과 [몽고제국의 감추어진 역사(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에서 여 몽관계의 중요성에 관한 논문 두 편이 석사논문의 연장선에서 쓰인 연구였습니다. 각각 1963년과 1964년에 출판되었지요.

1963년에는 한글창제에 관한 박사학위논문을 위해 포드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다시 서울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멋진 일이었습니다. 잊지 못할 한해였지요. 당시 제 아내 이블린과 딸 캐틀린 그리고 저는 혜화동의 멋진 한옥에서 한국인 가족들과 지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였고 또 중요한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찻집에 한가로이 앉아 있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에 처음 와서 사귀었던 친구들과 다시 재회할 수 있었고 가끔 그들을 찾아가곤 했지만 그들 역시 생활이 너무나 바빠졌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국문과에 연구학생으로 등록했었는데 캠퍼스가 혜화에서 아직 관악으로 옮기기 전이어서 집에서 걸어서 통학할 수 있었지요. 나중에 하와이에서 존경받는 한국문학교수가 된 마샬 필은 당시 하바드의 대학원생으로 서울에 와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저는 이성용 교수의 지도 아래 서울대학교에서 중세 한국어 텍스트를 읽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과는 일주일에 두 번 만나서 '석보상절'을 비롯해 세종대왕과 세조 시절의 텍스트들을 읽었습니다. 필 교수와 저에게는 모두 귀중한 경험이었고 또한 즐겁게 보낸 시간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서울대학교에 갓 교수로 임용된 이기문 교수를 만난 것도 그때였습니다. 특별히 지도받은 것은 없지만 이기문 교수가 제 연구에 관심을 나타냈었고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서울에 머무른 한 해 동안 논문을 위한 자료와 책들을 광범위하게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인사동과 동대문 시장에 있는 서점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고가로도 구입할 수 없는 자료들을 싼 가격에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모은 자료들이 몇 해를 두고 쌓이면서 한국학연구를 위한 개인적인 서고역할을 했고 큰 도움을 받았음은 물론입니다. 당시 미국의 대학원생들은 일반적으로 박사과정 중 2년은 해외에서 보내곤 했었는데 저는 일년으로 끝내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결정적으로 제가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직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1964년 8월 서울을 떠났는데 학위논문을 위한 준비는 거의 다 마친 상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단에서 가르치는 일과 가족을 부양하는 일(둘째 딸이 1965년에 태어남)에 적응하기까지는 거의 일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질문:** 교수님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1446년 한국어 개혁에 관하여(The Korean Language Reform of 1446)] 인데요. 한국인은 한글창제를 '개혁(reform)'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쓰신 이유가 있습니까?

**게리:** (한국의) 학자들은 대부분 세종대왕의 프로젝트를 말할 때 '창제(창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구를 하면서 받은 느낌으로는 이 프로젝트는 세종대왕의 조정에서는 상당한 논쟁거리였었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프로젝트는 그 전 과정이 아주 정치적이었습니다. 일국의 대왕이 전 백성의 삶에 영향을 미칠 뭔가를 한다고 할 땐 정치적이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시 관료들이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프로젝트를 비난하고 한글 자모를 무슨 '오랑캐'의 것인 양 폄하하고 쓸데없는 시간낭비라고 대왕을 비판했던 사실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게다가 세종대왕은 한글창제를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 수년간에 걸친 논쟁 속에서 의사청(議事廳)을 설치하고 동궁(진평대군)이 몇 가지 한정적이긴 하지만 조정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는데 당연히 관료들이 완강히 반대했었습니다. 관료들은 한글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들의 신분상의 특권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았고 백성들 또한 중국의 예법과 한자를 익히는데 게을리해서 조정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아녀자까지 포함한 일반 백성들에게 한글을 보급하고자 하는 세종대왕의 희망은 그들에게 계급적 위협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세종대왕의 일련의 행동들은 이후 한국을 영원히 변화시킨 언

어 혁명(개혁)으로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조선의 관료들과 사대부 계급들이 수세기동안 한글의 언어혁명이 완전히 구현되지 못하도록 저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의 원래의 취지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을 단순히 자모의 형태와 음성학의 측면에서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도 탐구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5 세기까지 한국의 엘리트 계급 즉 사대부가 국가의 공식 언어로 왜 한문을 선호했는지 그 문화적 배경을 샅샅이 훑어야 했습니다. 이두처럼 한자에 기반해서 한글을 표기하던 방법들에 관해서도 연구해야 했습니다. 세종대왕 재위시절을 모두 조사해야 지만 한국어 문화에 기반한 한글 창제라는 정책을 이해할 수 있고, 세종대왕의 지적인 활동과 정부 조직의 혁신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글창제의 전반적인 맥락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 연구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글 자모에 담겨 있는 음성학적이고 언어학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깊이 고찰해 보았습니다.

질문: 1998년 한국에서 출판된 책은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로부터 아주 중요한 저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출판하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게리: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버클리에 1966 년에 제출한 학위 논문의 판권을 확실하게 해 놓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몇 가지 수정하고 교정하려고 했지만 콜롬비아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한 첫 두해 동안에는 리뷰가 필요한 부분들을 훑어 볼 시간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유니버시티 마이크로필름(University Microfilms)이라는 회사가 콜롬비아 대학의 동의 아래 제 논문을 마이크로필름에 담아 배포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제 논문을 대학 출판부를 통해 얻었을 때는 이미 저작권도 없이 배포되고 난 후였습니다. 새로 전체적인 재작업이 들어가야 저작권이 인정될 터였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다시 출판될 수가 없게 될 터였습니다.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원래의 논문을 좋아했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써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새로 쓰기로 했지만 또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바람에 좀처럼

실행에 옮길 수가 없었지요. 이기문 교수는 논문을 새로 출간하도록 저를 자극했습니다. 제가 원고를 그에게 보냈을 때 이교수가 보여준 관심과 격려는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이기문 교수는 국립국어연구원의 초대 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출판사업 목록에 제 논문을 포함했습니다. 후임 원장 이익섭 교수 역시 제 논문 출간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능동적으로 추진해 주어서 1997년에 재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이 정해진 한도를 넘어서게 되었고 그 결과 절반 정도만이 개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 논문이 책으로 출간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유니버시티 마이크로필름을 통해서 팔린 제 논문 버전이 널리 알려지게 되어 북미, 유럽, 러시아의 학자들이 제 논문을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개정판이 1998년 한국에서 출간되기 전에 이미 한국학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알려졌었다고 할 수 있지요.

## 한국학의 영역 확대

**질문:** 교수님은 지금 한국사와 한국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나 역사적 시기가 따로 있으십니까?

**게리:** 특별한 관심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항상 한국사에 관한한 '빙하기에서부터 냉전시대'까지 관심이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냉전의 결과로 분단을 맞은 지역입니다. 1990년대 이전 그러니까 1960년대와 1970년대 프랭크 볼드윈(Frank Baldwin) 교수가 현대 한국사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몇 년간을 제외하고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한국학 전문가로는 제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여러 가지를 다 포괄하는 (한국학) 교양인으로서의 제 책무를 정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한국사에 관한 질문을 해오면 거기에 아주 고무되는 걸 느끼곤 했지요. 사회학이나 경제학과의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연구과제나 시험에 한국과 관련된 것들이 있을 때면 저에게 문

의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한국에 관해 다양한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한국을 중국과 일본과의 연관선상에서는 물론 동아시아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책을 출판했죠. 점차 제 관심사는 세종대왕 시기를 벗어나서 범위를 넓히게 되었구요. 앞선 책의 출간으로 말미암아 관심사가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두 페이지에 걸쳐서는 19세기 조선 조정과 천주교회간의 갈등까지 다루었구요. 중국측의 10세기경 기록에 등장하는 '동이(東夷)'의 지역과 조선의 영역사이의 문화적 연관성에 관해서도 연구해 보았습니다. 깊이보다는 연구의 범위가 더 중요한 측면이었다고 말하는 게 적합할 거 같군요. 최근의 연구 성과가 두 권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초창기의 상당수 논문들은 여러 논문잡지에 광범위하게 실려 있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편집된 논문 선집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한국학 연구자들이 제 논문을 읽고 제가 그동안 이룬 성과와 유용한 아이디어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 한국학의 중대한 전환점

질문: 나중에 콜롬비아 얘기로 돌아가기로 하구요. 먼저 교수님의 첫번째 저서인 『하멜표류기(The Dutch Come to Korea)』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이 주제에 접근하시게 되었는지요?

게리: 이병도 선생이 쓴 헨드릭 하멜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2] 하멜은 1654년 배가 난파되는 바람에 조선에 온 네덜란드 선원이었지요. 이보다 오래전에 저는 하멜이 직접 서술한 조선 체류기를 읽었습니다.(1668년 네덜란드에서 출판) 그러나 이병도 선생님의 책이 좀 더 재미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료들을 영어로 번역했고, 부가적인 한국학 관련 자료와 함께 이병도 선생님께서 미처 참고하지 못했던 자료를 발견하였습니다. 한국사의 주류라는 차원에서 보면

2) 이병도, 『하멜 표류기』, 일조각(1954)

하멜과 그의 동료들이 조선에서 13년간 억류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건이 당시 조선에 즉각적이거나 장기간에 걸친 충격이나 영향력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야기 구조에 사람들이 갖는 호기심과 관심 차원에서 볼 때, 하멜 이야기는 아주 매혹적인 것이지요. 외국 선원의 표류라는 돌발적인 사태에 대해 당시 조선 조정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실상을 독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조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읽으면서 당시 조선 정부가 난파라는 사건이 일어난 제주와 네덜란드 선원들을 이주시킨 전라도 지역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내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선원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직업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재산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선원들이 난파선을 손질하고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줬음을 볼 때 조선정부는 아주 인도주의 차원에서 행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의 기술을 평가하고 이용하긴 했지만 몇 차례 탈출을 시도 했을 때는 처벌도 내렸습니다. '하멜표류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존재가 몽골에 알려졌을 때 외교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조선의 군대와 지방 경제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멜과 동료들이 나가사키 항에서 네덜란드로 송환될 때 일본과 협상한 내용도 나와요. 이러한 모든 사건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조선의 내부적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저는 다른 한국학 관련 일차자료들에 대해서 아주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1975년 삼중당 출판사는 제 동의 없이 한국어로 번역 출간했습니다. 제 책의 출판 대행사인 로얄 아시아틱 소사이이어티 한국지부와 삼중당은 협상을 진행시켰고 그 결과 '하멜표류기'의 한국어 번역판 문제가 우호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이병도 선생의 책 제목과 똑같은 『하멜 표류기』로 박은희씨에 의해서 번역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혼동이 많이 되었지요.

**질문:** 교수님의 한국지도 연구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어떻게 관심을 가지시게 되었으며 연구 결과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게리: 지도와 관련된 주제에 저를 이끈 결정적인 계기는 부르스 커밍스 교수입니다. 당시 시카고 대학 출판부는 세계 지도사를 망라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할 한국학 연구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동아시아 부분을 만들 참이었는데 한국 관련 부분을 집필할 저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부르스 커밍스 교수에게 누군가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고 부루스 커밍스는 저를 추천했던 겁니다. 그 프로젝트의 책임 편집자인 데이비드 박사와 이야기를 나눈 후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기획이 아주 좋았고 또 작업의 수준도 높아서 앞으로 지도학을 연구하는데 획기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게다가 이 작업을 계기로 한국에 대해서 별로 알 기회가 없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중국과 일본에 관한 부분을 일별해 보았는데, 중국과 일본 지도와 일치하지 않는 조선만의 독특한 지도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단 한국학이라는 영역에 관계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자료를 소개할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아주 고무되었습니다.

질문: 지도학과 관련해 당시 조선이 이룬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게리: 우선 제일 먼저 1402년에 만들어진 세계지도 '강리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고려의 외교사절들은 1330년대 몽고가 중국을 지배하던 때에 이미 나름대로 편집된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료들은 상당수의 이슬람 세계의 자료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지도제작자들은 이슬람 세계와 아프리카 그리고 북아시아와 유럽의 경계까지 표시된 중국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인들은 여기에다 조선과 일본의 경계까지 덧붙였습니다. 당시까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뉴질랜드, 호주, 남극대륙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콜롬버스가 1492년 신대륙 탐험에 나서기 전에 봤을 법한 유럽 지도 같은 게 있었다면 조선의 강리도와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편집자 데이비드 우드워드(David Woodward)는 이 조선 지도에 큰 감명을 받아서 『지도사(The History of Cartography)』의 겉

표지에 실었습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순간이었죠. 이것 뿐 만 아니라 토속적인 세계지도에 해당하는 '천하도(天下圖')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중국의 '산해경(山海經)' 에 대한 한국인들의 독특한 해석에 근거한 것입니다. '산해경' 은 중국인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지만 거기에 수록된 자료에 근거해 상상력을 발휘해 그 위치를 작성한 것은 조선인들이었지요. 18세기 지도제작자 정상기(鄭尙驥), 19세기 지도제작자 김정호가 제작한 지도는 그 세밀함과 아름다움이 당시 중국이나 일본에서 제작된 그 어떤 것보다도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 관한 연구를 하려면 한국의 예술, 과학, 수학, 측량법, 국가 방어와 외교, 실학, 서구 문물의 유입 등등 여러 분야의 한국학 공부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지요. 새로이 눈을 뜨게 해주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쁨은 지면의 양이나 삽화의 수에 있어 그동안 동아시아 관련 서구 출판물에서 미미하게 다루어져 온 한국이 이제는 동아시아 문화의 중추적 부분으로 대접받았던 것일 겁니다.

질문: 교수님의 저서들 중 여기서 미처 언급되지 않았지만 교수님의 연구 중에서 가장 의미있다고 꼽을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게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것은 아마 「일본의 시조를 찾아서, 기마족과 함께 말을 달리며(Galloping Along with the Horseriders, Looking for the Founders of Japan)」일 겁니다. 이 논문은 에가미 나미의 유명한 저작인 「기마국가: 고대 일본사에 대한 접근(The Horserider State: An Approach to Ancient Japanese History)」[3]에 대한 비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사의 전문가인 에가미씨는 일본 내 일본 사학자들과는 다른 재야 학자군에 속하는 사람으로 일본은 아시아 대륙에서 침략한 기마민족에 의해서 건국되었다는 논문으로 일대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에가미씨는 이 논문에서 일본을 침략한 기마 침략자와 가장 연관성 있는 한반도인이 천황이 되었을 것이고 그는 중국의 지령에 따라 3세기 조선의 남쪽 반도에서 삼한의 영역을 지배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3) 에가미 나오미, 『騎馬 民族 國家: 日本 古代しえの』, 이와나미(1960) 14판

생각하기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한 천황의 등장은 다소 이른 감이 있고, 일본과 한국과의 연관성에 틀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일본인이 아닌 다른 곳 출신자가 일본을 건국했다고 진지하게 주장하는 그의 당당한 이론 전개 태도를 존중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외부인이 있었다면 그들은 당연히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갔을 테고, 실제 그랬다면 4세기 '삼국'이 성립되던 당시 한반도의 정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백제와 고구려의 전쟁, 그리고 고구려가 신라의 정사에 깊이 관여하고 지배하던 기간에 일어난 전쟁들을 연관시켜 보았습니다. 삼국 중에서도 백제는 일본에 커다란 문화적인 영향을 끼친 나라입니다. '기마'족이 존재했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과 국제적인 학회에서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 4세기 일본과 한반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군사적인 전쟁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 논문은 바로 이 문제를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제 논문은 일본과 북 아메리카에 있는 일본 역사학자들에게 알려졌고 일본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여기서 더 설명하자면 좀 복잡해집니다.

**질문:** 교수님의 그 논문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게리:** 제가 아는 한, 전혀 없었습니다. 일본 건국에 한반도인이 개입되었다고 열렬하게 주장하는 사람으로는 경제학자이면서 한국 역사학의 주류에서 벗어나 글을 쓰고 있는 홍원탁씨를 들 수 있습니다. 홍원탁씨는 일본 건국에 백제가 커다란 역할을 한 점을 들면서[4] 제 논문을 거론하며 어떤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어떤 점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제 논문 중 의미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중국-만주-조선에서 사용된 음양(陰陽)」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조선과 만주 그리고 중국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특정한 소재(음양)를 통해 연대기적으로 그 구도를 짜보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세 지역의 왕조에서 사용된 '음', '양'이라는 용어에 대해 생각해 보았죠. '양'은 주로 통합과 안정 그리고 문화교류가 활발하던 때를 나타내고 반면에 '음'은 왕조가 불안정하거나 쇠퇴하

4) 홍원탁, 『백제와 일본 야마토의 기원』 (1994)

거나 또는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이 자리에서 '음'과 '양'이 갖는 다양한 뉘앙스를 다 소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 이 논문에서는 전반적인 구도와 함께 동아시아사를 한(漢)왕조부터 19 세기 말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몇 가지 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마민족에 관한 논문처럼 대중성을 갖는 논문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수년동안서구의 중국학, 한국학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아주 기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고와 전쟁: 1598 년의 조선의 안보 위기 (Confucianism and War: the Korean Security Crisis of 1598)」를 들고 싶습니다. 이 논문은 임진년에 일어난 전쟁 막바지에 일어난 유명한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선이 중국의 양효라는 장군을 보호하려고 한 사건이지요. 양효 장군은 울산에서 왜군과 맞서 아주 힘겨운 싸움을 하지만 결국 패하고 부상을 당합니다. 명나라 조정은 그를 체포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중국으로 호송할 것을 명하지요. 조선의 선조 임금이 보기에는 양효는 진정 조선에서 최선을 다해 전투에 임한 장군이었기에 양효를 변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변호가 오히려 명나라로 하여금 조선에 대한 감찰을 단행케 하여 선조를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합니다. 선조는 왕위를 내놓을 처지에 몰리게 되고 실제 물러나게 됩니다. 선조는 신유가의 신념에 따라 그 충심을 다했다고 스스로 자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선조가 물러나는 것을 반대하고 다시 왕위에 복귀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런 식의 위기가 일주일 정도 계속되었고 선조는 조정 신료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걸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명나라 조정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선조는 다시 왕위에 복귀하여 명나라의 군사들의 지원에 힘입어 양효의 구명을 위해 간곡한 서한을 보내고, 공론을 일으키고 선전활동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명나라 조정에 압박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양효는 중국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선조는 모든 혐의를 벗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명나라 조정내의 반-전쟁(반-조선) 세력이 실각하고 조선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그 혐의를 벗고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해 명나라 조정을 이끌게 됩니다. 아무

튼 임진란의 결과 일본 사람들은 명나라와 조선의 해군들에게 군사적인 압력을 당해 철수해야 했고, 결국 전쟁은 끝이 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명나라와 조선의 동맹이라는 아주 복잡한 외교관계입니다.

임진란과 연관해서 한 가지 더 들 수 있는 것은 명나라 장수 전린(Chen lin) 수하에 있던 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기다란 두루마리에 그려 있는 그 그림은 대략 여섯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선에 도착한 명나라 군대, 명-조선 연합군의 일본군 요새 함락장면, ( 심지어 태극이 그려진 기가 달려있는)명과 조선의 배로 둘러싸인 일본군 요새장벽, 남해에서 벌어진 노량대첩(이순신 장군이 목숨을 잃은), 언덕에서 최후의 일본병사들을 소탕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해섬의 벼랑에서 몇몇이 떨어지는 장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에 대해서 이미 상세한 연구를 행한 바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출판하고자 노력했었습니다. 문제는 60년대와 70년대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했던 중국인이 이 그림을 소유했었는데, 1972년 혹은 1973년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중국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자 대중으로부터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미 그 그림의 상세한 부분을 완전한 한 세트로 복사해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몇 장은 1978년 신동아에 썼던 논문에 수록됐었지요. 그러나 저는 한 미국인 학자가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그림의 전체 두루마리가 출판되어 소개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출판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 일이어서 그런 비용을 감당할 적당한 출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수 천명의 조선, 명나라, 일본 병사들 그리고 수많은 배와 여러 가지 무기들이 묘사되어 있는 5미터짜리 그림이 분명 한국 역사학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질문: 그 그림은 어떻게 알게 되셨지요? 요새(성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본 병사들은 당시 조선에 요새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게리: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국과 관련된 여러 서적들을 포함해 관심사가 다양했던 미국의 중국학자 Fang Chaoying에 의해서 입니다. Fang교수는 1960년대 후반 캘리포니아에서 열렸던 명나라 전쟁 학술회의에서

그 그림을 처음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때 전체 그림을 찍은 사진 셋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Fang 교수는 직접 원본 그림은 보지 못했지만 미국에 사는 중국 예술품 수집가가 그 그림이 사라지기 전에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더군요. 성채에 대해서는 실제 대 여섯개가 있었습니다. 그중 순천 가까이 있었던 것이 그 그림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조실록에도 이를 확증시켜주는 언급들이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여러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 1974년과 1979년에 순천성에 가본 적이 있는데 실록에는 '예교'라고 명명되어 있는 곳입니다. 당시 대구 계명 대학교에 교환 교수로 와 있던 저는 그때 여러 곳을 답사해볼 수 있었습니다. 울산에서 순천에 이르는 남해안을 따라 철조망이 쳐져 있더군요. 울산 도심내의 한 공원에는 아주 흥미로운 유적지가 있고 해안가를 따라 울산 남쪽으로 40 킬로미터를 가면 서상포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곳 또한 훌륭한 유적지입니다. 그 밖에도 저는 앞서 회화에 묘사된 남해의 일본군 진지 유적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노트에 그림을 그리다가 해안 경비대의 의심을 받기도 했지요. 제가 한국말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려하자 경비대들은 더 긴장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무슨 스파이인가 하고 말이죠. 운이 좋게도 신분증과 계명대학으로부터 받은 초청장 때문에 혐의를 벗고 그들과 잠시나마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 한국을 여행하고 북한을 알게 되다

**질문:** 아주 흥미진진한 여행이었군요. 그 밖의 지역도 두루 다녀보셨습니까?

**게리:** 저는 특히나 한국의 시골풍경을 좋아합니다. 마음먹은 것만큼 다녀보지 못했습니다만, 좋은 기회들이 몇 번 있었지요. 1968 년, 평화봉사단의 대표가 저를 초대해 마침 그 지역에서 일하고 있던 자원 봉사자들 몇 명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아주 인상 깊은 시골 풍경들을 둘러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강원도는 상대적으로도 여전히 낙후한 지역이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가다보면 정말이지 머리가 쭈뼛하게 설 정도로 아슬아슬한

벼랑길이 많았습니다. 낭떠러지가 너무 가파른 곳에서는 부득부득 차에서 내려 걸어갔을 정도입니다. 강폭이 넓고 물살이 센 곳을 지날 때는 나룻배를 타고 지났는데 남자 몇몇이 장대와 밧줄만을 가지고 뗏목을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절대 잊지 못할 여행이었죠.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모든 것이 변해버렸지만 그 전에 그 지역의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여러 지역을 여행했었고, 북의 함경도를 제외한 한국의 섬들도 다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한라산과 지리산 그리고 서울과 가까운 여러 산들을 올라가 보았고 북한의 묘향산에도 올라가 보았습니다. 북한에 갔을 때는 그렇게도 금강산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습니다만, 주최측의 스케쥴상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 다른 일정을 위해 포기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학자들이 한반도 전체를 염두에 두는 자세를 갖고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몇 해를 두고 저는 18세기 이중환이 지은 '택리지'를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당시 그는 땅의 형세를 볼 줄 아는 탁월한 안목을 지니고 있었고, 형세가 지역 경제와 역사적인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일이 있다면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에는 '택리지'를 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중환의 식견과 통찰력을 빌릴 수만 있었다면 답사를 통해 많은 것을 감상할 수 있었을텐데, 아쉽습니다.

**질문:** 교수님께서 북한을 방문하셨을 때는 북한이 지금보다는 좋은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에 가실 때 특별한 목적 같은 것은 없으셨나요?

**게리:** 최근에 북한을 방문해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없지만, 아무튼 당시의 북한 상황은 지금보다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북한을 방문한 목적은 그저 북한을 체험해 보고 한반도 전체 국가를 보고 싶다는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한국의 동향을 가까이 관심있게 지켜보았고 통일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에 관해서도 책을 낸 적도 있습니다만 그다지 깊이 파고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북한 방문도 엄격한 의미에서 무슨 답사나 연구차 방문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면 북한과 북미 학자들간의 학문적인 접촉을 자극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수년간 콜롬비아 대학의 한국학 세미나 의장으

로 있으면서 북한에서 외교관들이 오면 콜롬비아 대학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스폰서로 참가했었는데, 그 후 1985년 워싱턴에 있는 아시아학 협회의 중-대서양 (Mid-Atlantic) 지역의 연례 모임에 북한 역사학자들이 참가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회의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북한 학자들이 미국을 처음 방문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해 1986년 저는 북한 방문을 신청했습니다. 방문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 같았기 때문에 중국사회과학원(CASS)의 후원으로 중국도 잠시 들를 계획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평양에서 어떤 이유를 들어 방북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방문시간으로 할당된 시간을 한국학 연구소가 있는 길림, 요녕, 그리고 연변지역을 둘러보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1988년에 다시 방북 신청을 했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단체 방북 일원이 아니라, 그저 연구자 개인 자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1일 동안 저를 안내한 사람이 '주석대표(one-man delegation)'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소개한 북한을 비로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평양에서는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게리: 보통 관광하는 데만 해도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주체탑, 만경대, 인민대학습당과 음악회, 서커스 공연 그리고 외국의 지도자들과 '주체학습 동지들'에게서 김일성 주석이 받았다는 만개의 선물이 거대한 단독 홀에 전시되어 있는 묘향산 '우정 박물관'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를 안내한 안내원은 판문점까지도 볼 것을 권했지만 사양했습니다. 저는 판문점을 분단 한국의 상징처럼 여기고 한국에 있을 때도 방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쪽에서도 판문점을 가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요. 아무 반대 없이 받아들여주더군요. 기념비가 있고 정치적인 사연이 깃든 관광지가 전혀 흥미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곳을 방문하는 것도 하나의 예의라고 봅니다. 안내원들은 국제적인 기구에서 파견된 여러 외국인 관리들과 학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는데 나름대로 유익했습니다. 학자들 모임이든 외국 관리들과의 모임이든 긴 시간동안 한국과 관련된 흥미로

운 주제들을 놓고 토론을 벌였는데 무슨 정책적인 선동이나 입장 같은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 했는데 저는 아주 정확하고도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유익한 토론이었고 또 서로 다른 견해차를 보이는 그런 주제가 아닌 한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토론의 기술과 능숙함에 존경심을 보냈습니다.

저는 북한에 있는 동안 학술적인 활동을 위해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자료들을 검토하고, 전에 논문을 통해 알게 된 교수들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고고학자들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만약 가능하다면 벽화가 있는 무덤들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운산금광지역 역시 가보고 싶은 곳 중 하나였죠. 그 금광을 개발한 미국인 라이 헌트(Leigh J. Hunt)의 후손에 대한 연구를 했던 터였습니다. 1895년과 1905년 사이는 독점개발권으로 인해 가혹한 개발이 시작된 때였습니다. 운산금광지역 방문이 거절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운산 말고 제가 방문하고자 희망했던 곳은 다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고대 한·일관계사에 관해 중요한 업적을 남긴 박시형과 김석형 선생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기마민족'에 관한 제 논문에 연관이 있는 분들이었죠. 박시형 선생은 북한의 한국학에 아주 깊이 연관되신 분으로 중요 인물로 보였습니다만 김석형 선생은 건강이 아주 안 좋아 보였습니다. 옆의 속기사가 대화를 다 기록하는 바람에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 그분과의 면담 신청을 했을 때 북한 당국은 김선생이 평양에 계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아주 실망스러웠죠. 왜냐하면 일본어로 편집된 김선생의 논문[5]이 제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고 또 아주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박시형 선생을 만나고 며칠 후 김선생이 '돌연' 평양에 도착해 면담이 가능해져서 스케쥴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김선생과 만나 약 30분 동안 '속국 이론'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이 이론은 고대 한반도의 왕국들 즉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 등이 일본에 속국을 두고 있었다는 내용입니

5) 김석형, 『初期朝日關係硏究』 북한 사회과학원(1966). 일본어판은 '古代朝·日本關係史', 도쿄(1969).

다. 최근의 연구 성과를 보면 고대 한반도의 왕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이주민 집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그들이 고대 일본에 광범위하게 미친 문화적인 공헌과 영향력들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선생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일본 내 한반도 이주민들과 본국의 왕국들 사이에 밀접한 연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 뒷받침되는 증거들 없이 너무 멀리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그 이주민 공동체가 한반도의 고대 왕국의 정치적인 계산속에 있던 것이든 아니든 그들이 본국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을 가졌을 테고 그 관계가 다분히 협력적인 것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선생의 연구의 범위와 깊이는 아주 압도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그 분의 저작은 1960 년대 그러니까 북한 역사학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당시에 이루어진 탁월한 연구 성과의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966 년 이후, 북한의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고 이론들이 경쟁하던 창조적인 분위기를 상실합니다. 김선생과 박선생은 그 시대를 풍미했던 분들로서 나로서는 만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아주 영광이었지요. 김선생님과 헤어질 때는 정말이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북한을 방문하면서 최근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은 4 세기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벽화가 그려진 고대 무덤들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357 년이라는 년도가 새겨진 안악 3 호 무덤군은 황해도 북쪽 지역의 사리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시기가 그보다 뒤쳐지는 덕흥리 무덤은 평양의 서쪽에 위치한 강서군에 있습니다. 이 두 무덤은 북한에서 발견된 벽화가 있는 무덤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두 무덤에는 모두 지하 암실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방에서 온 고고학자들을 제외하고 외국인들 중 이 무덤에 들어가 볼 수 있었던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 그 안을 둘러볼 수 있었던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적인 유적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에 대해 아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안악 3 호 무덤에서 아주 재미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 공산당원들이 제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저와 동행해

무덤을 구경하려고 입구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당시 책임을 맡고 있었던 고고학자는 많은 사람들이 무덤 속으로 들어와 숨을 쉬게 되면 무덤 안 습도를 높이게 되어 벽화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입장을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을 제지시킬 권한은 없었던가 봅니다. 저를 합쳐서 적어도 10여명이 약 10여분 동안 무덤을 둘러보았지요.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자 습기(수증기)가 뿌연 안개처럼 무덤 벽을 타고 내려왔고 담당 고고학자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북한에 처음 도착한 날 저는 사람들로부터 평양의 박물관에는 최근의 것까지 모든 무덤의 완전한 복제가 있으므로 현장에 갈 필요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안내원들이 우호적으로 현장 방문을 허락하는 바람에 곧 누그러졌지만, 무덤 답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벽화가 저로 인해 손상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만 할 뿐이죠.

## 콜롬비아대학의 한국학 연구 현황

질문: 콜롬비아대학에는 1964 년에 오셨는데 당시 콜롬비아 대학에는 중국학과 일본학만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첫 번째 한국학과 석좌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국학이라는 영역은 전반적으로 미숙했었을 것 같은데요. 한국학의 위상은 어떠했습니까?

게리: 그렇습니다. 50년대와 60년대만 하더라도 콜롬비아 대학 '동아시아' 학부에 한국학과는 없었습니다. 제가 콜롬비아에 왔을 무렵에는 어느 정도 시작단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콜롬비아에서 한국학을 가르친 첫 번째 연구자는 아닙니다. 피터 리 교수가 1950년대 잠시 가르쳤었고 윌리암 스킬렌드(William Skillend) 교수가 1962 년 한국어와 문학을 가르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스킬렌드 교수님이 계속 가르쳤다면 저한테 기회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교수님과 부인이 고향인 영국에서 살고자 결정했기 때문에 운명처럼 저한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연찮게도 콜롬비아 대학이 저에게 주목한 것은 한국학 연구가 아니라, 중국의 고대 언어학에 대한 연구 때문이었습니다. 버클리에 계신 교수님 중 한분이었던 Chen

shih-hsiang 교수님께서 이 방면에 연구자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한테 묻지도 않고 저를 후보로 추천하셨던 겁니다. 테오도르 드 배리(Theodore de Bary) 학장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학장님이 제 전공이라고 알고 계신 분야에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저의 중요한 목적은 한국학을 특화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드 배리 교수님이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한꺼번에 두 마리 새를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실제 중국의 고대 언어학을 약 4년간 가르쳤습니다만 그 후로는 풀 타임 한국학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드 배리 교수와 다른 정교수님들은 저를 편하게 대해 주시려고 원래 명칭인 '중국과 일본' 학과를 '동아시아 언어와 문화(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라고 바꾸어 주셨답니다. 다른 대학의 경우, 하버드 대학의 한국학 프로그램은 1959년 에드워드 와그너(Edward Wagner) 교수가 임명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워싱턴 대학에도 일찌감치 한국학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서태수 교수가 오면서 주로 한국 문학쪽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했죠. 한국사에 관한 한 와그너 교수 말고 저의 후견인 같은 교수가 바로 버클리의 마이클 로저스(Michael Rogers)교수입니다. 영구 석좌직에 오른 건 제가 세 번째일 겁니다.

질문: '세종대왕' 교수직(스칼라쉽)이 생기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의해 기금이 조성되는 겁니까?

게리: 1964년 처음 강사로 임명되면서부터 종신교수로 승진할 때까지 '한국학 교수'로서의 저의 직위는 대학 당국의 순수한 예산에 의해서 유지되었고 특별한 기금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콜롬비아 대학과 한국학술진흥재단(Korea Foundation) 사이의 기금 협의를 통해 학술진흥재단은 새로운 교수직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콜롬비아는 그 전액을 새로운 교수직을 위한 기금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조의 표시로 콜롬비아 대학은 당시 저 정도 교수를 위해서 별도의 기금을 만들었는데 그게 점차 상향조정되어서 저명한 교수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학교측은 저한테 이 기금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물어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기금의 이름은 정치적인 문제나 사업적인 또는 재단과 전혀 연관이 없으면서도

한국의 문화를 그대로 상징하는 것으로 붙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미지에 딱 맞는 걸로 '세종대왕' 을 생각해 냈죠. 대학 당국은 여러 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도록 세 가지 이름을 추천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정말이지 맨 처음 것 하나 생각해 내는 것보다 나머지 두개를 생각해 내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마침내 '이순신' 이나 '충무공' 그리고 '3·1운동(March First)'이라는 이름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을 한국 친구들에게 보여주자 모두 하나같이 '세종대왕'이 가장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위대하긴 하지만 무관 장군의 이름을 교수직에 붙이는 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3·1운동' 이라는 이름은 정치적인 것을 배제한다는 저의 원칙에 어긋나는데다, 한국사회에서는 정치적인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북한 학자들은 애국적이긴 했지만 무력하고 부르조아적인 운동이었다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이야말로 남-북한의 견해차를 무난히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었습니다 당연히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이 채택되었지요.

말할 필요도 없이 '세종대왕' 기금 교수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과 다른 동료들 역시 저만큼 기뻐해주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세종 대왕이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한국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 자모를 발명하는 일이라든가, 음악이나 의약 그리고 천문이나 달력을 제작하는 일이라든가, 세종대왕은 똑같은 과정을 따랐습니다. 먼저 그 문제에 관한 중국서를 주의 깊게 탐독한 연후에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한국적 상황에 맞는 결과를 이룩했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바 한국학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서구에서 비롯된 한국학의 기준들 같은 이론이나 기존의 패러다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한국학이라는 실체와 접근 방식에 관한 한 한국적 상황이 우선 고려되고 연구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한국과 관련된 이슈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한국적인 정황에서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으로 저는 여러 가지 자료와 근거들에 아주 가깝게 다가서려 했고 제 책을 읽은 독자라면 이미 아셨겠지만 저는 번역서들을 자주 이용하고 있고 가능

한 진실된 한국의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떤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그런 정황들을 결정하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한국학의 위상

질문: 그럼 한국학의 발전과 관계해서 좁게는 콜롬비아대학, 넓게는 북아메리카에서 한국학의 발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교수님이 재직해 계시는 동안의 한국학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특징지을 수 있을까요?

게리: 제가 1964 년 콜롬비아에서 교편을 잡았을 때만 해도 당시 미국에는 약 12개에서 15개의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이라는 타이틀로 과를 운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만 한국학이라고 불릴만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다섯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하버드, 워싱턴 대학, 콜롬비아, 버클리, 그리고 프린스턴 등이었죠. 버클리는 1970 년대 이전에는 한국어 정규 코스를 제공하지 못했고 프린스턴도 1960년대 한국학 프로그램을 제외시켜 버립니다. 중국과 일본학 연구에 대해 일반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대부분의 대학들이 한국학을 발전시키는데 거의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자면 어떤 대학에 한국학을 설립한다 치면 적어도 한국학 정규 교수직 한 자리와 최소 2년간의 한국어 코스, 그리고 관련 한국서적들을 갖춘 연구 도서관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게 최소한도의 조건이자 한국학과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한국학 프로그램이 중국이나 일본학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턱없이 기준에 미달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오늘날 한국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약 1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2 명에서 5명까지 정규 교수직을 갖추고 3 년에서 4 년간의 언어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 천권에서 만권에 이르는 서적을 갖춘 도서관이 있고 석사, 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교환교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산하 연구기관이 있고 공공 강좌를 개설하거나 영화를 상영

하고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학 프로그램의 약 30% 정도는 이 모든 기준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비하면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지만 중국학이나 일본학과 같은 정도의 레벨을 갖추고자 한다면 아직도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죠. '동아시아'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메이저급 대학들 중에는 아직도 한국학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대학 당국 스스로가 알겁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질문: 그동안 한국학의 발전 경과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게리: 1970년대 석유파동이라는 부정적인 충격이 닥쳤을 때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군요. 당시 대학의 예산문제에도 큰 파장이 미쳐 명암이 크게 엇갈렸다고 할 수 있죠. 그때는 마침 초창기 프로그램을 마치고 처음으로 대학원 학생들이 막 졸업하던 시기였습니다. 예산삭감이 동아시아 학과 모두에 미쳤지만 중국학과 일본학 프로그램은 그동안 이룬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입었습니다. 한국학의 경우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그 분야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종류의 직장을 찾아봐야 했고 이건 명백히 인력 낭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박사과정을 마치기도 전에 그만 두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현재보다는 연구 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게 한국학 발전에서 부정적인 요인이 되었죠. 긍정적이었던 면도 물론 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경제가 도약해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한국 상품들을 보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북미 사람들이 한국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대학생들이 (한국학을) 선택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부터 1980년대 말까지 신문지상에 소개되는 한국에 관한 기사라는 것들은 대개가 부정적인 것들이었죠. 독재정부, 유신헌법, 인권 유린, 코리아게이트, 박정희 대통령 피살사건, 광주학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등등. 그러던 것이 한국의 근대사에서 처음으로 경제뉴스가 미국 신문지상에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할 정도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 있었던 굵직한 발전으로는 미국 전역 대학에 첫 세대 한국유학

생들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유학생 수는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대학 캠퍼스 곳곳에서 자주 만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사, 한국어 그리고 한국문화 과정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경향이 북미 대학에서 한국학 강사를 확대시키는데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학은 주로 대학원 과정에 치중해 있었습니다. 학부에도 한국학 과정이 개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학을 연구하는 많은 한국학자들이 더 열심히 연구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구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저는 평균적인 강의보다 한 두 개 정도 더 많은 강좌를 담당했습니다. 한국학은 동아시아 프로그램에서도 여전히 신생 학문으로서 미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도전적인 상황은 충분히 반가운 일이었죠. 한국학 연구자들은 다른 중국학이나 일본학을 연구하는 동료들 가운데서 점점 더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 위상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질문: 이제 (한국학 발전)기금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이런 분야에서 기금 문제는 늘 문제거리가 되지요. 중국학이나 일본학의 경우에서보다 더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게리: 마지막 질문은 아주 쉽습니다. 중국학이나 일본학에 대한 연구기금은 처음부터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이미 중국학이나 일본학과를 두었던 많은 대학들은 대학 예산을 통해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1940년대와 1950년대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아직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대학들은 '메이저' 대학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그럴 수 있는 형편이었고 간혹 동문 기금을 통해 대학 예산을 책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1950년대 말을 기점으로 점차 변하게 됩니다. 당시 연방 정부와 몇몇 메이저 재단은 (세계) 지역 연구를 고무시켰고 특히 동아시아학에 큰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동아시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던 대학들은 새로운 기금으로 번영하게 되었는데 언어학과 학위과정을 개설하는 등 확장일로를 걷게 됩니다. 한국학 역시 1960년대 이런 기금으로부터 이익을 보았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었고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동아시아학은 계속 더 인기가 높아지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한국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인이 일반적으로 한국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대외적으로 명성이 좋지 않았고 심지어 나쁜 이미지마저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이미지는 군사독재시절의 권위적인 정부에 의해서 더 강화된 측면이 있었죠.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돈이나 정부와 가깝고 또 정부와 유착한 기업들에서 오는 돈은 의심스러웠고 때론 적대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한국학 연구자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출처가 어디이든지 한국학 연구를 위해 쓴다면 좋은 결과를 갖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기금이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학자를 돕기 위한 목적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부류의 연구자들은 그 돈을 합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모두 합법적인 학문 발전을 위해서 썼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설득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두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독재정권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옳지 못하며 학문적 자유의 핵심은 외부의 그 어떤 영향과 이해관계 싸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오는 돈은 본질적으로 부패한 돈이며, 설령 쓰지 않고 그냥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미 부패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 당시 한국학을 연구하는 몇몇 교수들의 '반-한국정부' 성향의 증거를 찾기 위해 스파이들이 활동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시키고 대학에서 몇몇 한국인들은 학생들을 방해하고 부르스 커밍스 교수를 아주 골치 아프게 하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나쁜 이미지와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냈죠.

저는 첫 번째 의견을 가진 사람에 속했습니다. 한국정부로부터 오는 돈을 기꺼이 받아 콜롬비아 대학 내의 한국학 연구 상황을 개선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받은 돈을 합법적인 연구발전을 위해 책임 있게 쓰는 것은 전적으로 저의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받는 돈을

반대하는 학자들은 그 동기야 아주 진지하고 또 그들의 주장 역시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들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되새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만약 이 돈을 거부한다면 우리 한국학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며, 그런 내 행동으로 전도유망한 학생들은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를 끼칠 도덕적 권리가 저한테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초창기 한국측이 보여준 노력은 그리 달가운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국학을 막 공부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기금이 제대로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설령 있었다 해도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1970 년대와 1980년대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한국의 기업으로부터 기금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나 결국 받지는 않았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은 서울대와 자매교류 상태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문교부 산하 한국 리서치 재단으로부터 아주 우호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국 리서치 재단은 한국어 강좌 프로그램을 지원해주었고 몇몇 연구자와 학생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1992 년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선 다음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창설되었을 때 다시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이 재단은 더 확실한 바탕에서 국제적으로 한국문화를 알리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한국학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 계획이 아주 진지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무상으로 지원하는 기금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장학금과 도서관 지원이 그 주된 내용이었죠. 전 세계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는 확신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 기금 프로그램은 우리 한국학 연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또 이제까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 이런 프로그램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일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주장이 별 설득력이 없어졌습니다. 한국사회는 민주국가로 거듭났고 한국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전문화되고 능률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확신컨대 '(학문적) 독립' 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한국학에 지원되는 장학금과 재정적 지원이 여전히 미국 밖에서 오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 정부와 한국적인 의제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미국 대학 내의 한국학 연구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은 전적으로 우리 미국 학자들 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저는 한국정부가 요구하는 연구상 부담감 같은 것을 인식해 본 적이 없고 그동안 우리가 받아온 모든 지원에 대해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국제적인 연구에 있어 미국인 교수의 스칼라쉽을 탁월하게 유지시키고 신장시키는데 미국정부나 재정적 그룹이 모종의 책임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저는 미국 밖에서 보다는 미국 내에서, 그리고 대학의 내, 외부에게 재정을 지원해 줄 사람을 얻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한국인들이 한국학 연구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할 것인지, 왜 우리가 해야 하느냐고 반문해 오십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근시안적이고 궁극적으로 시니컬한 태도입니다. 한국이 이제껏 해온 것에 대해 아무런 존경도 감사도 할 줄 모르는 태도죠. 이런 것들이 저를 무척 당황스럽게 합니다.

## 한국학의 미래를 위한 계획

**질문:** 지금까지 많은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테지만 한국학의 미래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오늘의 질문을 마쳐야 할 거 같습니다. 교수님이 퇴임하신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신 일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게리:** 제가 포기한 유일한 일은 강단에서 강의하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항상 이 분야에서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공공 강연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고 한국사에 관해서 연구와 집필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실학자인 홍대용에 대한 논문을 집필하겠다는 장기 계획은 이제 출판인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에 대해서 한권 분량의 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4장

(chapter) 정도 써 놓았고 앞으로 20 장 정도 더 써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적어도 몇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최근에 두 편의 논문을 썼는데 그 중 하나는 1801년 순교한 조선 천주교인 강완석에 대한 것인데 올해 아마 출판될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중국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동이(東夷)'와 한국사와의 연관성에 관한 것인데 좀더 연구를 진행시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주제는 저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것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끝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이제까지 다루었던 주제 말고 전혀 다른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의 지도 아래 한국학을 시작한 대학원생들에게 조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논문을 다 마칠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가끔 미국 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관한 것을 강연하는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프로그램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는데 머지않아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도 싶습니다.

**질문:** 앞으로도 쭉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역자 : 정경란)